

한국 작업치료의 연구동향 : 대한작업치료학회지를 중심으로

유은영*, 이재신**, 이지연***, 박혜연****, 유지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동남보건대학 작업치료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작업치료의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관심주제, 연구대상, 치료적 접근법, 연구설계 등의 전반적인 작업치료 연구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분석 대상은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창간해인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346편의 논문이었고, 이들 논문을 주제, 연구대상자, 연구형태, 연구설계, 연구자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 연구 분석결과, 대한작업치료학회지의 연구형태는 실험논문이 전체의 84%로 가장 많았다.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성인은 뇌졸중, 아동은 뇌성마비로 나타났다. 연구의 질적수준과 설계는 4 단계인 설문조사 및 비무작위-단일실험군연구의 비율이 높았고, 5년 단위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4 단계 수준의 논문이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연구의 질적수준이 낮았다. 독립변수로 시지각 및 인지훈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감각통합치료, 강제유도운동치료 순이었다. 또한 종속변수로 일상생활동작과 상지기능을 가장 많이 측정하였고, 다음으로 시지각 능력, 행동변화, 연하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한국작업치료의 주요 연구분야와 대상자, 연구의 질적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추후 한국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보다 질적으로 높은 연구의 형태 및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고찰, 연구동향, 작업치료연구

I. 서론

작업치료는 1700년대 후반 의미 있는 작업 활동이 미국의 정신과에 수용된 환자들의 질병 개선에 효과적임이 밝혀진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의 윤리적 치료운동 즉 도덕치료(moral treatment)가 작업치료의 기원이다(Punwar, 1994). 도덕치료의 개념이 성립된 18세기 후반부터 작업치료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나

주요목표는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남아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생활환경을 변화시켜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Kielhofner, 1997).

한국의 작업치료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내에 소개되어 약 6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작업치료가 국내에 소개될 당시, 전쟁 부상자의 신체적 재활을 위한 의학적인 패러다임 형태로 소개되었다(이재신, 이

택영, 이지연과 유은영, 2004). 이후 1969년 의료기사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 국가면허 자격이 도입되어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이 시작되었고, 1979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학교육과 1993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발족 및 학회지 발간으로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이재신 등, 2004).

현재 국내·외적으로 작업치료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작업치료는 세계 보건기구 및 작업치료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WFOT)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수립 및 작업치료의 영역 개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보건의료 학문전반에서 일고 있는 근거중심의 접근(evidence-based practice)에 대한 노력은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작업치료가 앞으로 그 효율성을 연구에 근거하여 증명하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렵다(Kielhofner, 1997). 즉 작업치료의 존재여부는 작업치료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확신하며, 사회적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Kielhofner, 1997). 그러므로 21세기 작업치료는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근거(evidence)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작업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Holm, 2000).

국내의 환경 또한 다양한 작업치료 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작업치료 각 분야의 전문성 요구와 역량을 검증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권에서의 보험수가 정책의 변화,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법의 개정으로 치료지원서비스 신설 등의 의료시스템 외의 다양한 제도권에서 작업치료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작업치료의 연구역량을 증명하고(이단비, 정봉근과 이영선, 2007), 근거중심의 작업치료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강대혁, 이주연과 김진경, 2007). 강대혁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작업치료사의 6%만이 전문학술지에 소개된 연구근거를 임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치료사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물론 임상적 근거가 될 만한 충분한 연구들이 확보되었는지 연구역량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전문분야의 연구와 학문적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 중 관련분야의 전문학술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분야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주제의 변천사와 전문가 집단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Anderson,

Tang, & Barney, 2006). 이에 Case-Smith와 Powell(2008)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발행된 작업치료학회지를 분석하여 연구동향 및 작업치료가 가치를 두는 관심분야를 제시하였다. 그 외 영국, 오스트리아 등의 작업치료학회지에도 각 나라마다의 작업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Cusick, 1995; Mountain, 1997).

그러므로 작업치료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작업치료의 학문과 연구분야에 대한 동향분석은 작업치료 연구 분야와 경향을 단면적이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1993년 작업치료학회지가 창간된 이후 게재된 논문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작업치료관련 다양한 정책 자료로의 활용을 위한 분석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3년 발간을 시작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수록된 300여 편의 논문주제를 분석하여 한국작업치료의 연구동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추후 한국작업치료의 연구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1993년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18년 동안 36권으로 수록된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총 346편의 논문을 수집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한작업치료학회 홈페이지 <http://www.ksot.kr/>의 학회지 검색란을 이용하였고, 초록과 전문을 모두 확보하였다.

2. 분석 내용

1) 연구형태 및 동향

연구형태는 Case-Smith와 Powell(2008)의 연구를 근거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실험(research) 연구, 고찰(review), 발표(presentation)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표 1). 각 연구형태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5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설계(design)

논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근거기반 연구의 수준(hierarchy of levels of evid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을 5 단계로 분석하는 분류표를 사용하였다. 이 분류기준은 Arbesman, Scheer과 Lieberman (2008)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표 2).

3)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대상자들의 나이, 대상자수, 진단명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나이는 18세 이전(아동), 18세~64세(성인), 65세 이상(노인), 작업치료관련종사자(학생, 치료사, 전문가, 교수)로 분류하였고, 대상자수는 1~10명, 11~30명, 31~60명, 61~100명, 100명 이상 나누었다. 진단명은 뇌졸중, 뇌성마비, 척수손상, 외상성 뇌손상, 발달장애 등 임상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나이, 진단명에 따른 분석은 중복코딩을 허용하였다.

4) 연구분야

연구분야는 크게 임상실험연구와 기술적 조사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험연구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중복코딩을 허용하였으며, 기술적 조사연구는 단일사례연구, 고찰, 현황조사, 설문조사, 논평인 경우 연구 분야를 분석하였다.

5) 연구자 정보

연구자 정보는 지역간의 연구편차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제 1저자의 소속과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7개의 카테고리(연구형태 및 변화경향, 연구 수준 및 설계, 수준별 동향, 연구 대상자, 진단명, 연구 분야, 연구자 정보)로 나누어 엑셀 파일에 코딩하여 파일화하였고 윈도우용 SPSS 12.0을 사용하여 데이터로 변환 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연구형태 분류기준

구분	정의
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기술적 고찰, 질적연구
실험 연구	무작위 임상실험설계,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 개별실험연구, 설문조사
고찰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발표	발표

표 2. 연구의 질적 수준 분류기준

근거 수준	정의
1 단계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s) 메타분석(meta-analyses) 무작위 임상실험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 단계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two groups nonrandomized studies)
3 단계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one group nonrandomized studies)
4 단계	개별실험연구(single-subject designs) 설문조사(surveys)
5 단계	사례연구(case reports) 기술적 고찰(narrative literature reviews)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III. 연구 결과

1. 연구형태 및 변화 경향

연구형태에 따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동향을 알아본 결과, 실험 연구가 8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술적 연구이다. 5년 간격으로 동향을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여 작업치료학술지에는 실험논문이 주를 이루었고, 게재 논문편수는 5년 단위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1).

2. 연구 수준 및 설계

전체 논문 346편의 연구수준 및 설계는 체계적 고찰 1편(0.3%), 무작위 임상실험 설계 10편(2.8%)으로 1 단계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11편이었다. 두 집단 비무작위 연

구는 11.0%였고 단일 집단 실험설계는 33.8%로 2 단계에 해당하는 논문은 38편, 3 단계는 117편이었다. 개별실험연구는 9.5%, 설문조사는 26.9%로 4단계 논문은 총 126편으로 가장 많았다. 5단계에 해당하는 사례연구 논문은 2.0%로 7편이었고 기술적 고찰 논문은 13.0%로 45편, 질적 연구 논문은 0.6%로 2편으로 분석되었다(표 4).

3. 연구의 수준별 동향

근거수준에 따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동향을 알아본 결과, 3 단계와 4 단계는 각각 33.8%, 36.4%로 근거수준의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거에 비하여 4 단계는 다른 단계의 근거수준보다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그림 2).

표 3. 연구형태 및 변화

(단위: 빈도(%))

분류	1993~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합계
기술적 연구	6(31.6)	7(16.3)	23(21.1)	18(10.3)	54(15.6)
실험 연구	13(68.4)	36(83.7)	86(78.9)	156(89.1)	291(84.1)
고찰	0(0.0)	0(0.0)	0(0.0)	1(0.6)	1(0.3)
발표	0(0.0)	0(0.0)	0(0.0)	0(0.0)	0(0.0)
합계	19(100.0)	43(100.0)	109(100.0)	175(100.0)	34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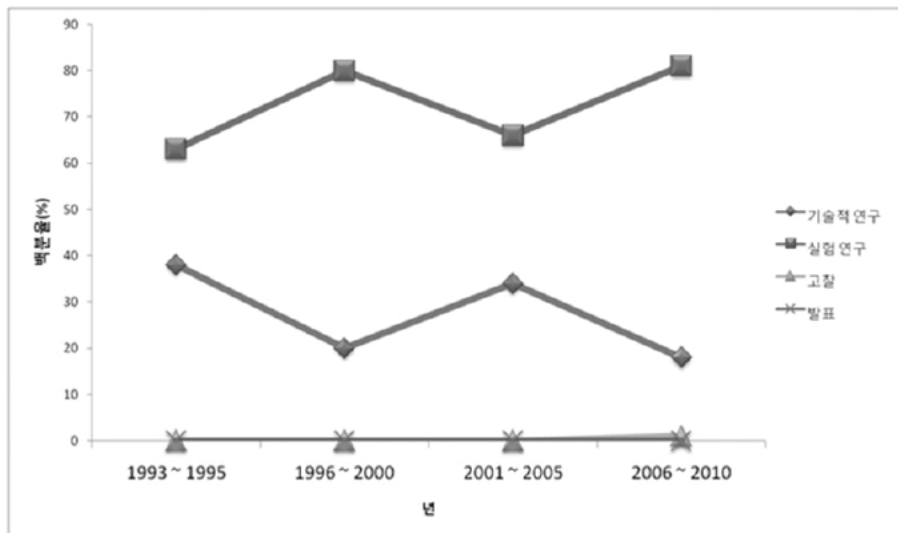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형식의 동향

표 4. 연구수준 및 설계

(단위: 빈도(%))

구 분		빈 도(%)
1 단계	체계적 고찰	1(0.3)
	메타분석	0(0.0)
	무작위 임상실험설계	10(2.9)
2 단계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38(11.0)
3 단계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	117(33.8)
4 단계	개별실험연구	33(9.5)
	설문조사	93(26.9)
5 단계	사례연구	7(2.0)
	기술적 고찰	47(13.6)
	질적 연구	2(0.6)
	합계	346(100.0)

표 5. 연구의 수준별 동향

(단위: 빈도(%))

분류	1993~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합계
1 단계	2 (10.5)	0 (0.0)	1 (0.9)	8 (4.6)	11 (3.2)
2 단계	5 (26.3)	7 (16.0)	5 (4.6)	21 (12.0)	38 (11.0)
3 단계	3 (15.8)	21 (48.8)	39 (35.8)	54 (30.9)	117 (33.8)
4 단계	3 (15.8)	8 (18.6)	41 (37.6)	74 (42.3)	126 (36.4)
5 단계	6 (31.6)	7 (16.3)	23 (21.1)	18 (10.3)	54 (15.6)
합계	19(100.0)	43(100.0)	109(100.0)	175(100.0)	34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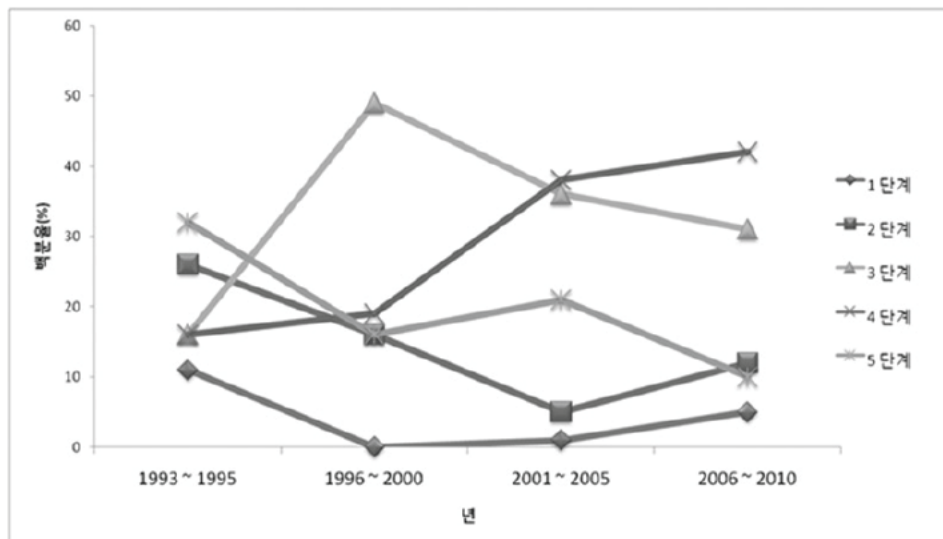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수준별 동향

4. 연구 대상자

나이에 따른 연구 대상자 분석 결과, 성인이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 25.2%, 아동 20.2%, 작업치료 관련종사자 10.9%순이었다. 연구 대상자수로 분석한 결과, 101명 이상 23.6%으로 가장 많았고 31~60명 18.4%, 1~10명 17.9%, 11~30 17.0% 순이었다(표 6).

5.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

전체 논문의 연구 대상자 진단명을 분석한 결과 성인 및 노인은 뇌졸중 6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척수손상 10.9%, 외상성 뇌손상 7.3%, 연하곤란 6.1% 순이었다. 아동은 뇌성마비가 33.8%로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 18.3%, 자폐증 14.1%, 외상성 뇌손상 5.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7).

6. 연구 분야

임상실험연구의 독립변인을 분석한 결과, 시지각훈련이 14.4%로 가장 높았고, 인지치료 13.3%, 감각통합 11.2%, 강제유도운동치료 10.0% 순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은 일상생활동작과 상지기능이 17.4%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시지각 11.9%, 행동변화 11.0%, 연하기능

9.3%로 분석되었다. 단일사례연구, 고찰, 현황조사, 설문조사, 논평과 같은 기술적 조사연구의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작업치료의 현황과 정책관련 주제가 15.2%로 가장 많았고, 상지기능 14.9%, 일상생활동작 13.6%로 나타났고, 감각통합, 보조공학, 정신사회적 이슈, 삶의 질, 인지 순으로 나타났다(표 8).

7. 연구자 정보

연구자 소속지역은 서울 23.4%, 충청 22.8%로 비슷하였고, 강원 16.8%, 경상 16.2%, 경기 12.1%순이었다. 제1저자의 소속은 학교가 6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합병원 24.6%, 병원 6.9%, 복지관 2.7%순이었다(표 9).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18년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36권에 수록된 346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한국작업치료의 연구수준, 주제 및 대상자에 대한 연구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46편의 수록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약 291편(84.1%)이 연구논문이었고, 54편(15.6%)이 기술적 연구, 1편(0.3%)이 체계적 고찰연구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표 6. 연구 대상자

(단위: 빈도(%))

	구 분	빈 도(%)
연구 대상자 (중복 분석)	아동(18세 이전)	80(20.2)
	성인(18~64)	160(40.4)
	노인(65세 이상)	101(25.5)
	작업치료 관련종사자(학생, 치료사, 전문가, 교수)	43(10.9)
	환자 보호자	12(3.0)
	합계	396(100.0)
연구 대상자수	1~10	62(17.9)
	11~30	59(17.1)
	31~60	64(18.5)
	61~100	35(10.1)
	101명 이상	81(23.4)
	없음	45(13.0)
	합계	346(100.0)

결과는 18년간 동향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근거중심의 연구수준(Arbesman et al., 2008)분류표에 기초한 5 단계의 연구수준 중 국내의 작업치료 연구는 4 단계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및 개별실험연구가 127편(36.4%)으로 가장 많았

다. 다음으로 3 단계 수준인 단일 집단 비무작위 연구가 117편(33.8%)으로 전체 수록된 논문 중 3 단계와 4 단계 논문이 전체의 70.2%를 차지하였다. 5년 단위의 연구의 질적 수준의 변화경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 단계에 해당하는 설문조사와 개별실험연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무작위 실험-대조군 연구, 실험대

표 7. 연구 대상자

(단위: 빈도(%))

연구대상자	진단명	빈 도(%)
성인 및 노인 (중복 분석)	뇌졸중	149(60.3)
	척수손상	27(10.9)
	외상성 뇌손상	18(7.3)
	연하곤란	15(6.1)
	근골격계질환	12(4.9)
	뇌성마비	10(4.0)
	지적 장애	5(2.0)
	신체장애	3(1.2)
	치매	2(0.8)
	시각장애	2(0.8)
	정신분열	2(0.8)
	청각장애	1(0.4)
	우울증	1(0.4)
	합계	247(100.0)
아동(중복 분석)	뇌성마비	24(33.8)
	발달장애	13(18.3)
	자폐증	10(14.1)
	외상성 뇌손상	4(5.6)
	지적 장애	3(4.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3(4.2)
	시각장애	3(4.2)
	청각장애	2(2.8)
	척수손상	1(1.4)
	근골격계질환	1(1.4)
	연하곤란	1(1.4)
	학습장애	1(1.4)
	반응성 애착장애	1(1.4)
	신체장애	1(1.4)
	감각장애	1(1.4)
	발달협응장애	1(1.4)
	피비우스 증후군	1(1.4)
	합계	71(100.0)

표 8. 연구 분야

(단위: 빈도(%))

	구 분	빈 도(%)
실험연구의 독립변인 (중복 분석)	시지각훈련 (Visual Perceptual Training)	13(14.4)
	인지치료 (Cognitive Therapy)	12(13.3)
	감각통합 (Sensory Integration)	10(11.2)
	강제유도운동치료 (CIMT)	9(10.0)
	도구적 적용 (Modality)	8(8.9)
	감각자극 (Sensory Stimulation)	7(7.8)
	연하치료 (Swallowing Therapy)	6(6.7)
	운동학습 (Motor Learning)	5(5.6)
	치료적 활동이 기반이 되는 작업치료 (Therapeutic-activity based OT)	5(5.6)
	행동 치료 (Behavior Therapy)	4(4.4)
	작업이 기반이 되는 작업치료 (Occupational-activity based OT)	3(3.3)
	신경발달치료 (NDT)	2(2.2)
	보조공학 (AT)	2(2.2)
	약물 및 주사 (Medication or Injection)	1(1.1)
	가정환경수정 (Home Modification)	1(1.1)
	교육 (Education)	1(1.1)
	직업훈련 (Work Training)	1(1.1)
	합계	90(100.0)
실험연구의 종속변인 (중복 분석)	일상생활동작	19(17.4)
	상지기능	19(17.4)
	시지각	13(11.9)
	행동변화	12(11.0)
	연하기능	10(9.3)
	인지	8(7.3)
	자세조절	8(7.3)
	활동수행도	5(4.6)
	뇌 기능 활성화	4(3.7)
	심리사회적 영향	4(3.7)
	손 감각	2(1.8)
	삶의 질	2(1.8)
	기타	3(2.8)
	합계	109(100.0)

표 8. 연구 분야(계속)

(단위: 빈도(%))

구 분		빈 도(%)
기술적 조사연구 -실험연구의 연구분야- (중복 분석)	작업치료의 현재와 정책	45(15.2)
	상지기능	44(14.9)
	일상생활동작	40(13.6)
	감각통합	19(6.4)
	보조공학	18(6.1)
	정신사회적 이슈	17(5.7)
	삶의 질	17(5.7)
	인지	16(5.4)
	지각	13(4.4)
	자세조절	8(2.7)
	연하기능	7(2.4)
	직업훈련	6(2.0)
	활동수행영역	6(2.0)
	놀이	3(1.0)
	인간작업모델	3(1.0)
	학과선택기준, 대학생활	3(1.0)
	뇌 기능 활성화	2(0.7)
	장애인에 대한 인식	2(0.7)
	기타	27(9.1)
	합계	296(100.0)

표 9. 연구자 정보

(단위: 빈도(%))

구 분		빈 도(%)
연구자 지역	서울	81(23.4)
	충청	79(22.8)
	강원	58(16.8)
	경상	56(16.2)
	경기	42(12.1)
	전라	23(6.6)
	제주	4(1.2)
	해외	3(0.9)
	합계	346(100.0)
연구자 소속	학교	216(62.4)
	종합병원	85(24.6)
	병원	24(6.9)
	복지관	9(2.7)
	센터	7(2.0)
	기타	5(1.4)
	합계	346(100.0)

조군 연구 등의 1, 2 단계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연구는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Case-Smith와 Powell(2008)은 2001~2005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에 발행된 1,017편의 영어권 작업치료학회지의 내용을 분석 하였는데, 이중 연구논문이 69.4%, 기술연구가 19.8%, 체계적 고찰 연구가 8.5%, 발표는 2.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국내의 경향과 비교할 때, 국내가 상대적으로 연구논문의 비율은 높으나 체계적 고찰 등의 수준이 높은 연구형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의 설계 및 수준을 국외의 현황(Case-Smith & Powell, 2008)과 비교할 때, 연구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1 단계에 해당하는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은 11.5%였으나 국내는 0.3%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또한 질적 수준이 낮은 설문조사와 개별실험연구의 비율은 21.8%로 한국의 36.4% 보다 낮아 국내의 현재 연구현황이 세계적인 연구추세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수준이 낮았다.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은 관련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 임상적 유용성과 합의를 도출하는 연구형태로 관련된 임상분야에서 근거중심의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형태이다(이충휘, 2002). 그러므로 국내 작업치료사들이 작업치료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등의 연구형태의 발전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단 2편이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경험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연구디자인으로 추천되고 있다(Zemke & Clark, 1996). 작업치료는 다양한 문화와 개인의 작업을 고려하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Wood, 1998)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대상자별 분석결과에서는 성인이 전체의 40.4%, 아동 20.2%, 노인 25.5%로 성인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e-Smith와 Powell(2008)의 해외 연구에서는 아동과 학교관련 연구가 약 28.6%, 신체장애 및 재활이 34.8%, 노인이 12.4%로 보고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비율은 국내와 세계적인 추세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노인과 관련된 분야는 국내 작업치료사들

에게 관심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대상자의 진단명으로 뇌졸중이 전체의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성마비 12%, 척수손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이 주로 치료하는 대상이 뇌졸중과 뇌성마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2010)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작업치료사 3,738명 중 2,069명(55.3%)이 신체장애와 관련된 성인 분야를 관심분야로 지정하였다. 다음 관심분야로는 신체장애 아동분야로 지정한 회원이 356명(12.2%)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소아분야의 연구대상자 중 뇌성마비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즉 국내연구에 나타난 진단명과 국내작업치료사들과 일하는 영역 및 관심분야가 매우 유사하여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로는 시지각 및 인지훈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감각통합이었다. 종속변수로는 일상생활 동작, 상지기능, 시지각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작업치료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치료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유은영, 정민예, 박소연과 최은희(2006)가 한국 작업치료사의 영역별 평가 도구 사용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대상 중 신경계 성인 환자에게 평균 13.5개의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인지 및 지각 평가도구는 전체 158명의 응답자중 80.3%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평가도구인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는 79.5%, weeFIM은 74.6%, sensory profile은 61.2%로 그 사용빈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은영 등(2006)의 연구가 소아 및 성인 작업치료사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자료임을 감안했을 때 치료대상별로 분석이 되었다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내작업치료사들은 인지, 일상생활, 상지기능 등에 대한 관심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분야에서 높은 비율로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지속된다면 연구의 종속변수로 활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도 비슷한 연구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작업치료의 경향이 대상자 중심과 작업에 기반한 접근이 주를 이루는 세계적인 추세(Low, Baum, & Dunn, 2005)를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분야의 연구와 관심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 중 참여(participation)는 작업치료의 본연의 목표(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2)와도 일치하는 개념으로 국내의 연구도 세계적인 경향과 흐름을 반영한 연구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설문 및 기술적 조사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작업치료의 현황과 정책관련 주제, 상지기능, 일상생활, 감각통합, 보조공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및 조사연구에 작업치료 관련 정책과 관련된 주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국내의 다양한 법률의 개정과 제정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정책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연구논문임을 감안할 때 작업치료사의 증가에 따른 관련분야에의 참여를 위해서 당분간 작업치료 정책관련 주제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경향이 미래의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구지역 및 연구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서울과 학교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예와 차유진(2009)의 국내작업치료 인력 현황 및 수급분석에 따르면 2009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등록된 작업치료사 2,416명 중 경기 28.3%, 서울 24.3%로 전체 치료사의 52.6%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평원의 취업기관별 현황에서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료사가 57%였다(정민예와 차유진, 2009). 서울 지역은 작업치료 교육 대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작업치료사의 근무지역 중 서울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의 소속은 학교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교수진과 대학원생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외의 국내학술 및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든 내용을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작업치료분야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학술지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은 작업치료의 연구동향과 수준, 관심분야를 대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최근 작업치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학술지들을 포함한다면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한작업치료학회지를 중심으로 주요 관심 주제, 연구대상, 치료적 접근법, 연구설계 등의 전반적인 작업치료 연구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의 주요 영역은 성인이 가장 많았고, 진단명으로는 뇌졸중과 뇌성마비였으며, 연구의 질적수준은 4 단계인 설문조사 및 비무작위-단일실험군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독립변수로 시지각 및 인지훈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각통합치료, 강제 유도운동치료 순이었다. 또한 종속변수로 일상생활 동작과 상지기능을 가장 많이 측정하였고, 다음으로 시지각, 행동 변화, 연하기능 순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작업치료의 주요 연구분야와 대상자, 연구의 질적수준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추후 한국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보다 연구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대혁, 이주언, 김진경. (2007).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근거중심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1), 13-23.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0). *회원현황*. 강원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유은영, 정민예, 박소연, 최은희. (2006). 한국 작업치료사의 영역별 평가도구 사용 동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4(3), 27-37.
- 이단비, 정봉근, 이영선. (2007). 국가별 학교 작업치료 현황에 관한 연구. 강원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이재신, 이택영, 이지연, 유은영. (2004). *최신 작업치료학 개론*. 서울: 탐메디오피아.
- 이충희. (2002). *연구방법론*. 서울: 계축문화사.
- 정민예, 차유진. (2009). 국내 작업치료 인력 현황 및 수급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4), 113-127.
- Anderson, E. M., Tang, J. J., & Barney, K. F. (2006). The importance of occupational therapy contributions to health services research.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6(3), 104-116.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2).

-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6), 607–608.
- Arbesman, M., Scheer, J., & Lieberman, D. (2008). Using AOTA's critically appraised topic (CAT) and critically appraised paper (CAP) series to link evidence to practice. *OT Practice*, 13(5), 18–22.
- Case-Smith, J., & Powell, C. A. (2008). Research literature in occupational therapy, 2001–2005.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4), 480–486.
- Cusick, A. (1995).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A review of publications 1987–1991.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42(2), 67–75.
- Holm, M. B. (2000). Our mandate for the new millennium: Evidence-base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4(6), 575–585.
- Kielhofner, G. (1997). *Conceptual founda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2nd ed.). Philadelphia: F. A. Davis.
- Law, M. C., Baum, C. M., & Dunn, W. (2005). *Measuring occupational performance: Supporting best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NJ: Slack.
- Mountain, G. A. (1997).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989–1996.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0, 430–435.
- Punwar, A. J. (1994). *Occupational therapy: Principle and practice*. Philadelphia: Williams & Wilkins.
- Wood, W. (1998). Occupation-centered practice and education [Special Issu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 44–52.
- Zemke, R., & Clark, F. (1996). The dimensions of occupation. In R. Zemke & F. Clark (Eds.), *Occupational science: The evolving discipline* (pp. 89–93). Philadelphia: F. A. Davis.

Abstract

Research Literature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y by Using 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Yoo, Eun-Young^{*}, Ph.D., O.T., Lee Jae-Shin^{**}, Ph.D., O.T., Lee, Ji-Yeon^{***}, Ph.D., O.T.,
Park, Hae-Yean^{****}, B.H.Sc., O.T., Yoo, Ji-Eun^{****}, B.H.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nam Health College

^{****}Dept. of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survey and analyze the research literature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y in order to identify the comprehensive trends and actual state of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Methods :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93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and 2010 were surveyed, and a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types, topics, study designs, subjects, and intervention methods of the articles.

Results : The analysis outcomes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were as follows: (1) The main topic areas were adult and geriatric disorders, (2) the diagnoses were stroke and cerebral palsy, (3)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earch in terms of quality classification was level-4 (survey and non-randomized experimental study), and (4) independent variables addressed were the largest frequency of visuoperceptual and cognitive training, with the following sequence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and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 Dependent variables were mostly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llowed by visuoperception, behavioral change, and swallowing functionality.

Conclusion :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for research topics targeting the highest value in a variety of study populations. Scholarship should be focused on a research design that establishes evidence for occupational therapy approaches and practices.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trend, Review